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녀를 살게 하자.

가지받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편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녀를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 의뢰(依禮)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머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김광규, 때 -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집]

- ①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⑤ 자연과 거리를 둬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2.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3. ㉠~㉣ 중에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에서는 2,500년 전에 뽀루지나 중기의 치료제로 곰팡이가 핀 두부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요법으로 상처에 된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된장에 들어 있던 항생 물질의 효력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다. 서양에서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이전에 ‘한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는 ‘항생’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응용은 부족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백 종에 이르는 항미생물제제 중에는 실제로 자연계에 살고 있는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이와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나 에탐부톨(ethambutol)과 같은 약은 합성된 것으로,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항생제로 보

지 않는다.

인간이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세균에 작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이라고 불리는 층이 있고, 그것을 생합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포벽 바깥에 있는 당단백질을 트랜스펩티데이즈(transpeptidase)라는 효소가 연결해 주는데, 이 효소의 작용을 페니실린이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음으로써 세균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균의 용해에는 자가분해효소라는 세균의 효소가 관여하는데,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자가분해효소 저해제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그 세포가 신속하게 부서지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은 페니실린이 작용하여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어도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돌연변이 세균이 분리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페니실린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하여 페니실린 분해 효소로 페니실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 세균을 페니실린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에는 전혀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면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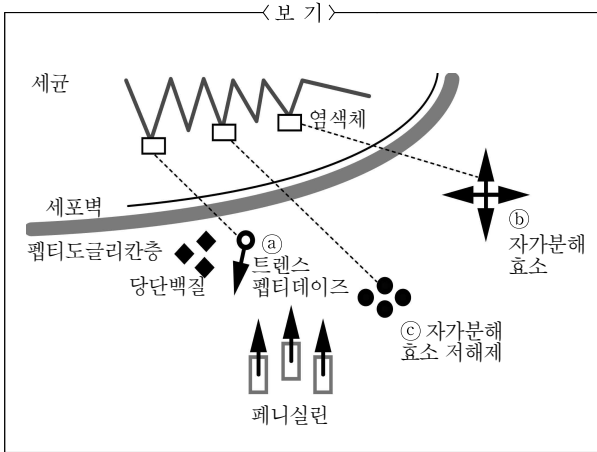
우리가 몸에 항생제를 직접 투여하게 되는 경우는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경우이다. 감기 초기에는 감기에 걸리게 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냥 두고 두통, 콧물, 고열 등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진통제, 비충열제제제, 해열제 등을 쓰게 된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 목 주변에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의사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곤 한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항생제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항생제의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항생제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수많은 연구자와 제약 회사들은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찾기 위하여 지구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제까지 확보해 온 우세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세균이 죽느냐, 인간이 죽느냐, 조물주조차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만든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에서 푸른곰팡이가 생산한 페니실린 미사일을 병균의 퇴치에 사용하는 지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오래 전부터 항생 물질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 ②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항생제는 미생물에서 분리된 것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있다.
- ④ 인간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 ⑤ 살아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은 것은 항생제로 보기 어렵다.

5. [A]를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세포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층과 당단백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페니실린이 ㉠의 작용을 억제하여 인체에 감염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다.
- ③ 페니실린은 내성을 지닌 세균에 대해서는 ㉠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 ④ 페니실린은 돌연변이 세균이 출현하면 ㉡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다.
- ⑤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를 감소시켜 세균이 용해되도록 한다.

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11차

공통 영역 by 교육청, 평가원 정답

2005.09 조지훈, 「마음의 태양」 / 김남조, 「설일」 / 김광규, 「때」  
(20, 21, 22) 1. ㉓ 2. ㉕ 3. ㉔

2006.04 과학 (32, 34) 4. ㉔ 5. ㉑